「문화재(文化財)와 나」

朴 日 薰

(前 慶州博物館長)

1. 경주박물관(慶州博物館)으로 복직(復職)한 동기(動機)

1945年 11月 어느 날 하오(下午), 정장(正裝)한 경주박물관(慶州博物館)의 수위(守衛)가 필자(筆者)를 찾아 왔다. 내용(內容)인즉 경성(京城)(지금의 서울)에서 유광씨(有光氏)가 내려 왔는데 곧 박물관(博物館)으로 좀 와달란다는 전갈(傳喝)이었다. 유광씨(有光氏)는 필자(筆者)가 경주박물관(慶州博物館)에 근무(勤務)할 당시(當時) 조선총독부박물관(朝鮮總督府博物館)의 주임(主任)이었다. 그가 고적조사(古蹟調査)를 할 때 필자(筆者)는 조수격(助手格)으로 함께 일한 적도 있고 하여 친분(親分)이 있는 사이였는데 일본(日本)이 패전(敗戰) 후(後) 그 때까지 남아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유광씨(有光氏)를 만나 인사(人事)를 하자 동석(同席)해 있던 김재원씨(金載元氏)를 소개(紹介)받고 미군(美軍) 한 사람도 인사(人事)를 시키는 것이었다. 군복(軍服) 차림의 미국인(美國人)은 군정청(軍政廳)에서 사회교육(社會敎育)을 담당(擔當)하는 분이었다. 그 자리에는 최순봉씨(崔順鳳氏)도 나와 있었는데 유광씨(有光氏)와 최순봉씨(崔順鳳氏), 필자(筆者)와 셋이서 자리를 따로 한 뒤 유광씨(有光氏)가 말을 꺼냈다. 박물관(博物館)에 복직(復職)해 달라는 권고(勸告)였다. 이제 나라가 독립(獨立)되었으니, 조선(朝鮮) 사람들이 박물관(博物館)을 맡아야지 않겠느냐는 것과 경주(慶州)는 중요(重要)한 곳이니, 꼭 복직(復職)해 달라는 간곡(懇曲)한 권고(勸告)였다. 이 때 필자(筆者)는 스스로의 책임(責任)이나 성격(性格)으로 볼 때 복직(復職)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즉석(卽席)에서 수락(受諾)한다는 것은 경솔한 짓이고, 또 부모(父母)님과도 상의(相議)가 있어야겠기에 다음 날 결정(決定)하겠다고 대답(對答)했다. 최순봉씨(崔順鳳氏)도 손을 잡고 꼭 와달라는 부탁이었고 김재원씨(金載元氏)도 자기(自己)는 경성박물관(京城博物館)을 맡을테니 우리나라 박물관(博物館)을 우리 힘으로 함께 일해 보자고 힘주어 부탁(付託)하는 것이었다.

필자(筆者)는 그날 밤 부모(父母)님에게서 허락(許諾)을 얻고 이튿날 아침 박물관(博物館)으로 나갔다. 김재원박사(金載元博士), 그네즈 빗치씨(氏), 유광씨(有光氏)는 경성(京城)으로 가기 위해 찝차(車)에 오른 채 필자(筆者)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자리에서 복직(復職)할 의사(意思)를 표명(表明)했더니 그 분들은 반가워 하면서 잘 해보자고 신신당부를 하고는 떠났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박물관(博物館)이라는 기구(機構)가 있기는 평양(平壤)에 부립박물관(府立博物館), 개성부립박물관(開城府立博物館), 경성(京城)에는 조선총독부박물관(朝鮮總督府博物館)이 있고 그 산하(傘下)에 경주(慶州), 부여분관(扶餘分館)이 있었는데 해방(解放)과 함께 분관(分館)으로 편입(編入)되었다. 그 당시에 공주(公州)는 공주고적보존회(公州古蹟保存會) 진열관(陳閱館)이 있는 외(外)에 박물관(博物館)이 없었다. 본(本), 분관(分館)을 통(通)해 가장 정통(精通)한 분이 유광교일씨(有光敎一氏)였다. 한국인(韓國人)

직원(職員)으로서 고고학(考古學)을 연구(硏究)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다만 본관(本館)에는 서무(庶務)에 최영희씨(崔泳喜氏)와 학술부분(學術部門)에 림천씨(林泉氏)가 있었을 뿐이었다. 이 때 우리나라 박물관(博物館)의 총책임(總責任)을 맡은 분이 김재원박사(金載元博士)였다. 본(本), 분관(分館)의 인사정비(人事整備)와 운영(運營) 문제(問題), 그리고 박물관(博物館) 사명(使命)의 중축(重軸)랄 수 있는 학술분야(學術分野)의 인사정비(人事整備)는 일조일석(一朝一夕)에 되는 것이 아니고, 1, 2年에 되는 것도 아니었으니 고심(苦心)이 이만저만이 아니였으리라. 그 당시(當時) 그러한 일에 참모역할(參謀役割)을 할 분은 유광교일씨(有光敎一氏)였다. 이분은 전전(戰前)에 조선총독부박물관(朝鮮總督府博物館)에서 학술연구(學術硏究)의 주축(主軸)이었으며 1933年 이른 봄부터 1935年 늦은 봄까지 2년간(年間) 경주분관장(傾注分館長)으로 재직(在職)했었다. 그 뒤 경성(京城)으로 전근(轉勤)하여 그 곳에서 고적연구회(古蹟硏究會)라는 조사기구(調査機構)를 만들어 전국(全國) 각지(各地)를 답사(踏査)하면서 조사(調査)하였기 때문에 지방(地方) 박물관(博物館)의 사정(事情)에 정통(精通)하였다. 뿐만 아니라 장차(將次) 박물관(博物館)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의 명단(名單)까지 알고 있었으므로 부여(扶餘)는 홍사준씨(洪思俊氏), 경주(慶州)는 최순봉씨(崔順鳳氏)와 나를 명단(名單)에 올린 것이었다. 그러나 세 사람이 모두 전쟁(戰爭)이 치열(熾烈)해짐에 따라 각기(各己) 사정(事情)에 의(依)해 타직장(他職場)에서 일하고 있었다. 김재원박사(金載元博士)가 박물관(博物館)을 총책임(總責任) 맡게 되자 미군정청(美郡政廳) 사회교육담당관(社會敎育擔當館) 그네즈 빗치씨(氏)와 유광교일씨(有光敎一氏)를 대동(帶同)하고 말하자면 삼개국(三個國) 사람이 찝에 타고 경주(慶州), 부여(扶餘)를 순방(巡訪)하면서 복직(復職)을 권고(勸告) 교섭차(交涉次) 왔다간 것이었다. 그렇게 하여 장기간 경주(慶州) 박물관(博物館)에 서무(庶務)를 맡았던 최순봉씨(崔順鳳氏)를 경주분관장(慶州分館長)으로 하고 나는 학술직(學術職)을 담당(擔當)하게 된 것이었다. 해방(解放)이 되었으니 우리도 이제는 담당(擔當)한 독립국(獨立國)의 국민(國民)으로서 어떤 직장(職場)이나 어떤 업무(業務)에서든지 성실(成實)한 일꾼이 되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다는 희망(希望)에 온 국민(國民)이 부풀어 있을 때였다. 「당신(當身)은 이제 일등국민(一等國民)으로서 유일(唯一)한 기구(機構)인 박물관(博物館)의 일을 맡아 해야되지 않겠오. 더구나 경주박물관(慶州博物館)을 어느 누구에게 맡기겠오? 그러니 최순봉씨(崔順鳳氏)를 분관장(分館長)으로 하고 당신(當身)은 학술분야(學術分野)를 맡아 훌륭한 박물관(博物館)으로 만들어 보시오」하던 유광교일씨(有光敎一氏)의 권고(勸告)도 영향이 컸지만, 나 역시(亦是) 사회적(社會的)으로도 존경(尊敬)을 받을 수 있는 학술적(學術的)인 분위기라든지 하게 될 일이 내 성격(性格)에 맞는 일이었기 때문에 쾌(快)히 복직(復職)하게 된 것이었다. 나중에 안 사실(事實)이었지만 해방(解放)과 함께 일본인(日本人)들은 전부(全部) 제 나라로 귀국(歸國)했는데 유광교일씨(有光敎一氏)는 김재원박사(金載元博士)가 미군정청(美軍政廳)에 교섭(交涉)하여 귀국(歸國)을 늦춘 것이었다. 그는 기왕(旣往) 귀국(歸國)할 바에야 가족(家族)과 함께 가고 싶었지만 분관(分館)을 통(通)하여 인사(人事) 문제(問題)를 협력(協力)해 주고 마지막으로 신라고적(新羅古蹟) 일기(一基)를 유광교일씨(有光敎一氏)로 하여금 발굴(發掘) 조사(調査)케 하여 그 과정(過程)을 배우게 해달라는 김박사(金博士)의 청(請)을 그는 거절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 그는 가족(家族)을 먼저 귀국(歸國)시켰던 것이었다. 사실 그 당시(當時)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고고학(考古學)을 전공(專攻)하는 사람이 전무(全無)할 정도였다고 볼 때, 그러한 일은 꼭 필요(必要)했다고 본다. 과거(過去) 약(約) 3년간(年間) 박물관(博物館)에 내가 근무(勤務)할 즈음 가끔 나는 유광일씨(有光一氏)가 유적지(遺蹟址)를 조사(調査)하게 되면 (경주(慶州)에서) 그의 조수격(助手格)으로 함께 측량

(測量)도 하고 실측(實測)도 하였다. 그는 발굴조사시(發掘調査時) 측량(測量), 실측(實測), 촬영(撮影) 등(等)에 능숙(能熟)한 분으로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혼자서 모든 일을 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그 분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고고학자(考古學者)들도 기술적(技術的)인 문제(問題)에서부터 허드렛일까지 하는 것이 공통점(共通點)이었다.

김박사(金博士)의 계획(計劃)은 종전(終戰)이 된 그 이듬 해 5월말(月末) 실현(實現)을 보아 경주(慶州) 로서리(路西里) 140호분(號墳)인 곤간총(壺杆塚)과 금령총(金鈴塚)을 발굴(發掘)하게 되었다. 이 발굴(發掘)에서 밑바닥에 「을묘년(乙卯年) 국강산광개토왕호태왕곤간십(國崗山廣開土王好太王壺杆十)」이란 명문(銘文)이 있는 청동기(靑銅器)가 출토(出土)되어 모두들 탄성(歎聲)을 올렸으며 고분(古墳) 명칭(名稱)도 곤간총(壺杆塚)으로 명명(名命)되었다. 이 발굴(發掘)을 통(通)해 박물관(博物館) 진용(陳容)이 발굴조사(發掘調査)에 있어 기본적(基本的)인 것을 배웠다는 경력(經歷)을 남기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경주박물관(慶州博物館)으로 복직(復職)한 것이 오늘에 이르게 되었고 박물관(博物館)에 봉직(奉職)한 것이 일생(一生)의 운명(運命)이 되고 만 것이다. 이제 낙엽(落葉)이지는 11月이 오면 정년퇴직(停年退職)이라는 명예(名譽)를 안고 일생(一生)을 바친 정(情)든 박물관(博物館)을 떠나야 할 입장(立場)에 있다. 당국(當局)은 정년퇴직(停年退職)이 가까웠음을 알고 문화재(文化財)를 다루었음에 있어서 무슨 공적(公積)이라도 있을까 하여 원고(原稿)를 쓰라고 하는데 원래(元來) 표현(表現)에 둔(鈍)한 나로서는 몹씨 망서려지는 것이다. 막상 붓을 들고 보니 한정(限定)한 지면(紙面)에 기억(記憶)나는 데로 즉흥적(卽興的)으로 몇 자(字) 써볼까 한다.

2. 영영(永永) 매장(埋藏)될뻔한 고분(古墳) 발견(發見)

광주(光州) 국립공원(國立公園) 추진(推進)의 전제(前提)로 1952年 내무부(內務部) 주관(主管)으로 도시계획(都市計劃)의 측량(測量)이 실시(實施)되었고, 이어 안압지록(雁鴨池綠) 도로작업(道路作業)이 시작(始作)되었다.

이 때 황오동제(皇吾洞第) 4호(號)고분(古墳)(팔우정(八友亭)) 남(南)쪽에 로타리가 되는 도면(圖面)을 간신히 입수(入手)하여 도로선(道路線)에 해당(該當)되는 고분(古墳)을 사전발굴(事前發掘)할 것을 반향(反響)시켰으나, 연결(連結)이 없었다. 작업(作業)하는 불도우저는 4호(號)고분(古墳)을 밀어 적석(積石)이 노출(露出)되는 사태(事態)가 벌어졌다. 공사(工事)는 중지(中止)되고 로타리는 북(北)쪽으로 옮기게 되었다. 여기서 대구(大邱)로 통(通)하는 선(線)에는 第1호분(號墳)이 위험한 상태에 있어 적석(積石)이 보이면 박물관(博物館)에 연결(連結)해 주기로 약속(約束)했다. 그 뒤 한동안 연결(連結) 이 없어 9月 어느날 출근(出勤)길에 공사장(工事場)으로 나갔다. 대구선(大邱線) 공사장(工事場)은 작업시간(作業時間)이 이른지 인부(人夫)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신설(新設)되는 로타리에서 동서(東西)로 통(通)하는 도로선(道路線) 작업(作業)은 거의 평평(平平)해졌고 第1호분(號墳)의 측근(側近)까지 작업(作業)이 됐으나 이상(異狀)은 없었다. 그런데 황오동사(皇吾洞舍) 앞의 뚝처럼 생긴 밭을 깍아낸 곳의 흙빛이 이상해 보였다. 그 곳은 1호분(號墳)의 북(北)쪽인데 고적(古蹟)이 있다는 표식(標識)도 안된 부분(部分)이었다. 아무래도 이상히 여긴 필자(筆者)는 높은 곳에 올라 내려다 보니 토색(土色)이 틀리는 부분(部分)의 모양은 거의 원형(圓形)이었다. 직감적(直感的으로 필자(筆者)는 등록(登錄)안된 고분(古墳)임을 느꼈다. 곧장 박물관(博物館)에 돌아온 필자(筆者)는 이 문제(問題)를 신중(愼重)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고분(古墳)으로 단정(斷定)하면 발굴조사(發掘調査)를 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도로(道路) 작업(作業)이 중지(中止)

되어야 하는데 문제(問題)가 있었다. 발굴작업(發掘作業)은 즉각(卽刻) 되는 것도 아니고 중앙(中央)에 반영(反映)시켜 예산(豫算)을 확보(確保)해야 하는데, 그것도 빨라야 수개월(數個月)이 걸릴 것이니 몇 개월 동안 공사(工事)를 중단(中斷)시켜야 한다는 문제(問題)였다. 또 이런 난문제(難問題)를 넘어 발굴(發掘)을 한다고 할 때 적중(適中)하여 유물(遺物)이 출토(出土)된다면 말이 없겠지만 만일(萬一) 나의 오진(誤診)으로 고분(古墳) 아니라면 어찌될 것인가. 국고금(國庫金) 손실(損失)의 문책(問責)을 당(當)하는 것은 그만 두고라도 공사(工事)를 중단(中斷)시킨데 대한 손해(損害)를 배상(倍像)하라는 공격(攻擊)을 피(避)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경주박물관(慶州博物館)은 경주(慶州)의 발전(發展)을 방해(妨害)만 하고 있다는 비잡(非雜)을 받고 있는 시국(時局)이었음에야 고적(古蹟)으로 지정(指定)되고 등록(登錄)이 되었다면 발굴결과고분(發掘結果古墳)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큰 원성(怨聲)은 없을 것이고 변명(辯明)의 여지(餘地)가 있지 않는가 그렇다고 그런 것을 염려(念慮)하여 버려둔다면 그것이 고분(古墳)일 경우(境遇)를 상상해 보라. 귀중(貴重)한 유물(遺物)이나 학술적(學術的)인 자료(資料)가 영원(永遠)히 아스팔트 밑바닥에 암장(暗藏)되 버린 것이 아닌가 말이다. 당시(當時) 주홍섭(奏弘燮) 관장(館長)은 서울 출장(出張) 중(中)으로 나 혼자만 가슴 조이며 판단(判斷)을 내리지 못했다. 결국(結局) 나는 이렇게 결심(決心)을 굳혔다. 고분(古墳)일 경우(境遇) 출토(出土)될 유물(遺物)은 국가소득(國歌所得)은 물론(勿論)이고, 학계(學界)를 위(爲)하는 길이고 고분(古墳)이 아닐 때는 욕(辱)을 먹는다든지 곤란(困難)을 받는 것은 나 개인적(個人的)인 일이 아닌가. 사람이 하는 일은 잘 하려던 것이 결과적(結果的)으로 잘못될 수도 있는 법(法)이니 이미 고분(古墳)으로 단정(斷定)한 이상(以上) 밀고 나가기로 했다. 즉각(卽刻) 중앙(中央)에 발굴(發掘) 요청(要請)을 하는 한편, 교육청(敎育廳) 고분보존회(古墳保存會) 간사(幹事) 박두현씨(朴斗鉉氏)와 경찰서(警察署)의 고적보호(古蹟保護) 전담(專擔) 경사(警査)를 박물관(博物館)으로 불렀다. 고분(古墳)일 경우(境遇) 현재(現在) 흙이 깎여진 지면(地面)에서 얼마 내려가지 않아 유물층(遺物層)에 도달(到達)할 것 같았다. 발굴(發掘)이 실시(實施)될 때까지 공사(工事)를 중지(中止)시키고 현장보존(現場保存)을 의뢰(依賴)했다. 그랬더니 곧 새끼로 삥둘러가며 외인출입(外人出入)을 차단(遮斷)시키고 역전(驛前) 파출소(派出所)에서는 현장(現場) 부근(附近)에 순찰함(巡察函)까지 설치(設置)해 주었다.

이 문제(問題)가 일어난 뒤 중앙(中央)에 요청(要請)한 발굴비(發掘費)도 내려오지 않고 공사장(工事場) 측(側)에서는 속(速)히 발굴(發掘)해 달라는 독촉(督促)이 심(甚)해 초조(焦燥)하기 이를 데 없었다. 설상가상(雪上加霜)이라더니 지병(持病)인 탈장증(脫腸症)이 악화(惡化)되었다. 그래 11月 14日 나는 부산(釜山) 단전병원(端典病院)에서 수술(手術)하기 위(爲)해 입원(入院)하고 말았다. 11月 21日 병상(病床)에 누운채 주관장(奏館長)이 보낸 편지(便紙)를 읽었다. 중앙(中央)에서 발굴비(發掘費)를 직접(直接) 갖고 내려와서 20日부터 발굴(發掘)을 시작(始作)한다는 내용(內容)이었다. 주홍섭씨(奏弘燮氏)는 1952年에 경주관장(慶州館長)에 부임(赴任)한 분으로 발굴(發掘) 경험(經驗)이 없어 의무적(義務的)으로 발굴(發掘)은 해야겠고, 이만저만 고민(苦悶)이 아니라고 했다. 과연(果然) 고분(古墳)이냐 아니면 얼토당토 않은 생지(生地)냐 결과적(結果的)으로 고분(古墳)이 아닐 경우(境遇) 그 뒤에 오는 부작용(副作用)과 복잡(複雜)한 문제(問題)들을 어떻게 수습(收拾)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는 생각들로 수술(手術)로 인(因)한 고통(苦痛)도 잊을 정도였다. 오로지 심신(心身)은 발굴(發掘)하는 그 삽 끝에 매달리는 것이었다.

담당(擔當) 의사(醫師)는 순조(順調)로우면 26, 27日에는 퇴원(退院)할 수 있다고 했지만, 나는 그렇게 기다릴 수가 없었다. 그래 고분발굴(古墳發掘) 관계(關係)를 이야기 하고 곧 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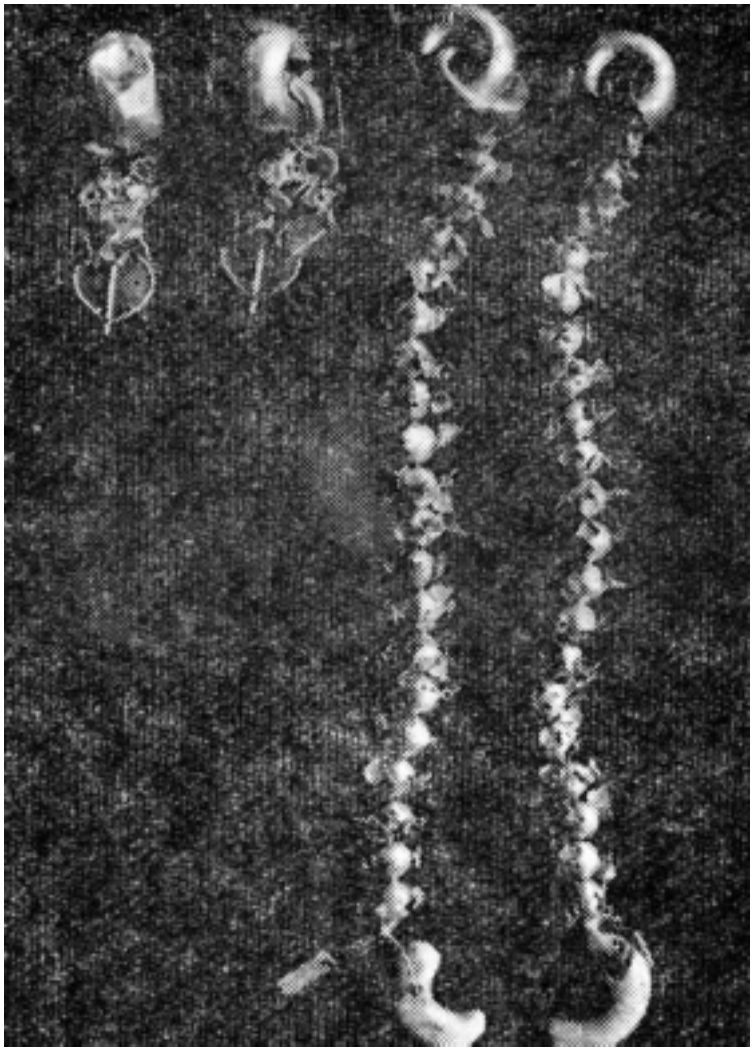
원(退院)해야겠다고 했더니 깜짝 놀라는 것이었다. 무리(無理)인 줄 알면서 24日 아침 퇴원(退院)을 하니 수술부위(手術部位)의 통증(痛症)으로 도저히 견디기 어려웠다. 병원측(病院側)의 만류(挽留)도 뿌리치고 나서니 외과과장(外科課長)이 승용차(乘用車)를 내어줬다. 부산역(釜山驛)에 도착(倒着)하여 개찰구(改札口)에서 승차장(乘車場)까지는 얼마 않되는 거리(距離)였지만 통증(痛症)으로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수술부분(手術部分)은 내장(內腸)이 아래로 압박(壓迫)하는 자리라서 더욱 아팠다.

퇴원환자(退院患者)로 동정(同情)을 얻어 차내(車內)가 복잡(複雜)했지만 그래도 누워서 경주(慶州)까지 무사(無事)히 도착(到着)할 수 있었다. 그 때가 하오(下午) 1시(時) 조금 지나서 였는데 역(驛)에서 나오니 마침 식당(食堂)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나오는 발굴대원(發掘隊院)들을 만났다. 주관장(奏館長)의 표정(表情)을 보니 면도(面刀)질도 않은 채 텁수룩한 얼굴에 걱정스런 빛이 가득했다. 그러한 것은 바로 고분(古墳)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나의 오진(誤診)으로 고생(苦生)만 시켜 미안(未安)한 마음과 함께 그 뒤의 수습(收拾)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순간적(瞬間的)으로 떠오르는 것이었다. 그래도 궁금하여 주관장(奏館長)에게 발굴과정(發掘過程)을 물어 보았다. 유리쪼각과 깨어진 요강, 지푸라기 등만 나오고 있다면서 실망(失望)하는 눈치였다. 현재(現在)의 상태(狀態)를 듣고 짐작되는 바가 있어 작업(作業) 방법(方法)을 변경(變更)시켰다. 우물을 판듯한 곳을 너무 깊이 파지 말고 좀더 넓혀 파문(波紋)이 퍼져 나가듯 파보라고 했다.

당시(當時)만 하더라도 경주(慶州)에는 영업용(營業用) 택시가 없었다. 그래 자전차(自轉車)에 실려 집으로 돌아가서 자리에 누웠다. 집에 돌아와서는 더욱 발굴(發掘)에 관(關)한 생각만으로 머리가 무거웠다. 25日, 그러니 부산(釜山)에서 돌아온 이튿날 하오(下午) 4시경(時頃)이었다. 발굴(發掘)에 참가하고 있던 윤경열씨(尹京烈氏)가 급(急)한 걸음으로 찾아 왔다. 윤경열씨(尹京烈氏)는 벙글벙글 웃으면서 「박선생님(朴先生任) 안심(安心)하십시오」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아픔도 잊고 벌떡 일어나면서 「어찌 되었소? 」하고 되물었다. 안심(安心)하라는 말에 다소의 안도감(安堵感)은 얻었지만 나를 더욱 궁금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윤경열씨(尹京烈氏)는 연신 웃으면서 유물(遺物)이 나오기 시작(始作)하는데 순금(純金) 귀거리 한쪽이 보이자 발굴대원(發掘隊院)들은 일제(一齊)히 환성(歡聲)을 올렸고, 이 순간(瞬間)을 알려 주려고 뛰어 왔다는 것이었다. 박물관(博物館)에 봉직(奉職)하는 보람을 느꼈다. 귀중(貴重)한 학술자료(學術資料)가 아무도 모르게 묻혀 버릴 그 직전(直前)에 고분(古墳)으로 단정(斷定)한 점(點), 현장(現場)을 둘러 보면서 아무리 설명(說明)해줘도 믿지 않고 반대(反對)하던 몇몇 사람들, 공사장(工事場)에서 독촉(督促)은 심(甚)한데 발굴비(發掘費)는 주지 않아 애태우던 점(點), 그리고 또한 입원(入院)해서도 걱정하던 일들이 주마등(走馬燈)처럼 떠오르는 것이었다. 통쾌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현장(現場)에는 나갈 수 없고 하여 유물(遺物)을 정리(整理)하는 방법(方法)과 위치(位置)를 정확(正確)히 실측(實側)하도록 당부(當付)하였다.

그 이튿날 유물(遺物)의 전모(全貌)가 들어났는데 상당(相當)한 량(量)의 귀중품(貴重品)이었다. 발굴(發掘)이 끝난 뒤 중앙(中央)에서 유물(遺物)을 가지고 올라오라는 전화(電話)가 왔다. 수술(手術) 경과(經過)도 좋아서 보행(步行)도 자유(自由)롭게 되었으므로 포장(包裝)한 유물(遺物)을 갖고 국립박물관(國立博物館)으로 가서 문교부장관(文敎部長官)과 이대통령(李大統領)까지 열람(閱覽)하게 되었다.

이 유물(遺物)의 발굴관계(發掘關係) 발표(發表)는 발굴(發掘)을 주관(主管)한 경주박물관장(慶州博物館長) 주홍섭씨(奏弘燮氏)가 미술자료(美術資料)에 약보(略報)로 발표(發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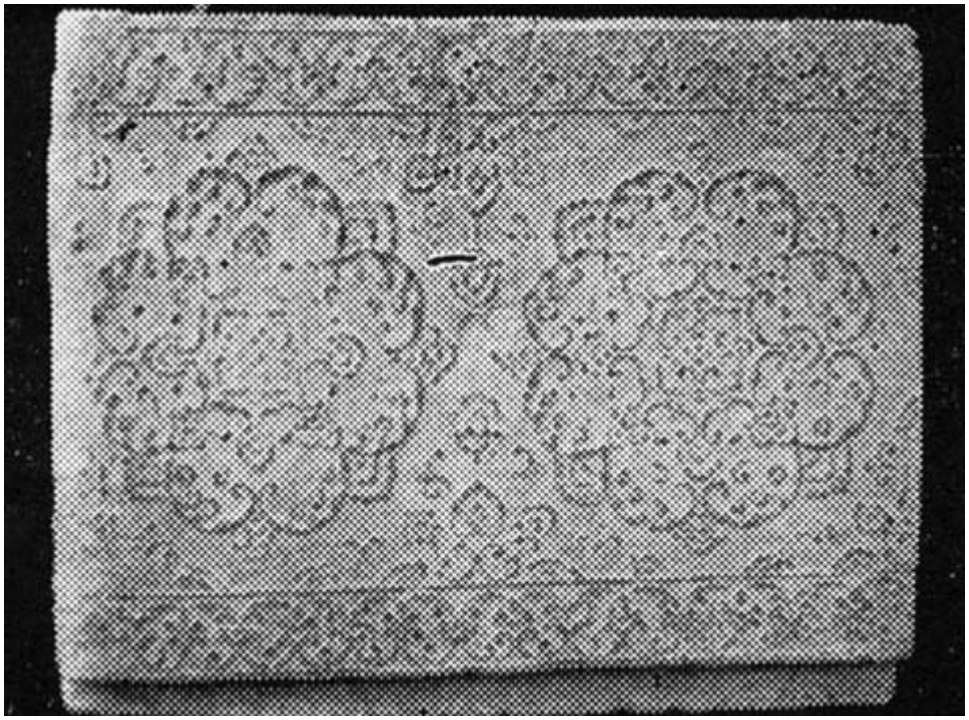


지하(地下)에 매장(埋藏)될뻔한 고분발견(古墳發見) 순금제이식(純金製耳飾) 2쌍(雙)
1952年 12月 30日

3. 유물(遺物)의 수집(蒐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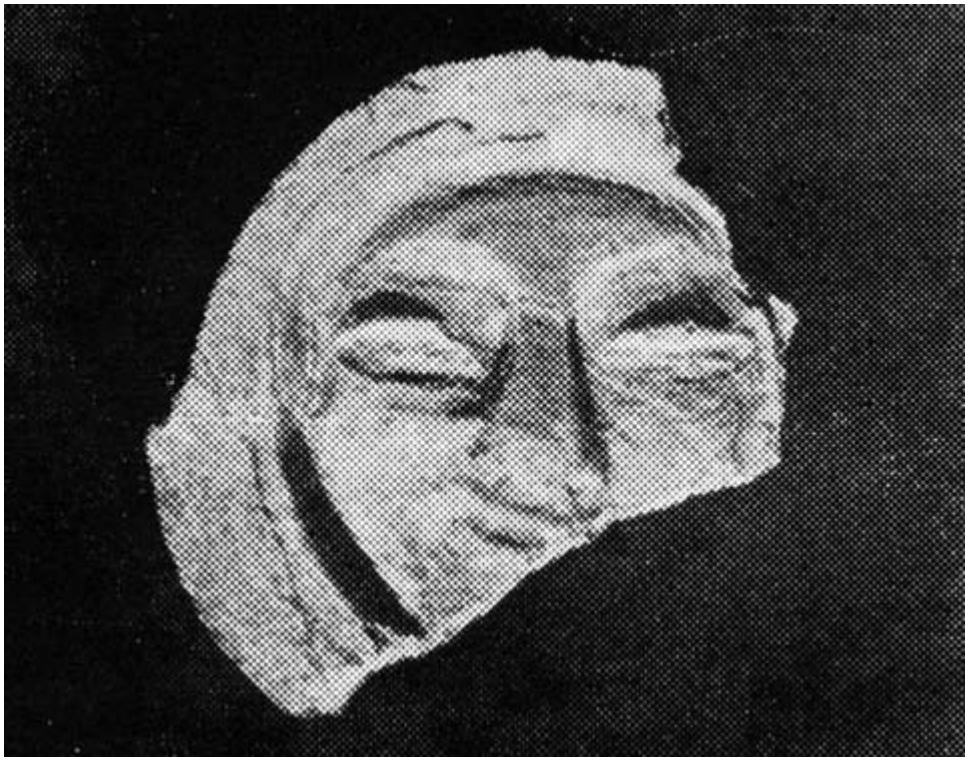
나는 1945年 11月 1일자(日字)로 경주박물관(慶州博物館)에 복직(復職)하여 오늘에 이르렀지만 문화재(文化財)와 인연(因緣)을 맺어 일을 하기는 그보다 훨씬 전(前)인 1937年 5月부터 된다. 현(現) 박물관(博物館)의 전신(前身)인 고적보존회(古蹟保存會)가 경주고적보존(慶州古蹟保存)을 위(爲)하여 크게 활동(活動)하고 있을 때다. 나는 이 고적보존회(古蹟保存會)의 촉탁(囑託)으로 있으면서 당시(當時) 경주박물관장(慶州博物館長) 대판금태랑씨(大坂金太郞氏)의 조사(調査) 연구(硏究)에 보조역(補助役)을 하면서 박물관(博物館)으로 출근(出勤)하였다. 이렇게 하여 나는, 신라(新羅)의 문화재(文化財)에 관(關)한 인식(認識)과 가치관(價値觀)이 더욱 깊어진 것이었다. 일인(日人) 학자(學者)들의 학술보고서(學術報告書)도 읽고 중앙(中央)에서 가끔 내려오는 유광교일씨(有光敎一氏)의 조수(助手) 노릇도 하면서 조사요령(調査要領)도 얻게 되었다. 그 당시(當時)만 하더라도 고적조사(古蹟調査)를 나가면 수집(蒐集)되는 유물(遺物)은 전부(全部) 경주박물관(慶州博物館)에 소장(所藏)시켰다. 지금도 공무원(公務

員)은 국가(國家)의 이익(利益)을 위(爲)하여 무정량(無定量)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깊이 인식(認識)하고 신라(新羅) 문화(文化) 연구(硏究)의 광장(廣場)이 바로 박물관(博物館)이기 때문에 아무리 희귀(稀貴)하고 가격(價格)이 높은 유물(遺物)이랄지라도 개인적(個人的)인 욕심(慾心)이 있을 수 없었다. 와당(瓦當) 파편(破片) 한 개(個)라도 박물관(博物館)에 등록(登錄)하였다. 유물(遺物) 수집(蒐集)에 관(關)해서는 얘기할 것이 많지만 지면관계(紙面關係)로 생략(省略)하고 단 한가지만 소개(紹介)하고저 한다.



보상화문증(寶相華紋增) 경주시인왕동출토(慶州市仁旺洞出土)

1972年 2月 15日 日 내량시장(內良市長)의 초청(招請)으로 일본(日本) 여행(旅行)을 하게 되었다. 그 목적(目的)은 내량평성경발굴연구소(奈良平城京發掘硏究所)에서 실제(實際)로 하고 있는 보존과학연구(保存科學硏究)의 시찰(視察)이었다. 짧은 시일(時日)에 보존과학(保存科學)의 지식(知識)을 얻기란 어려운 노릇이고 금속(金屬)과 섬유물질(纖維物質)의 보존방법(保存方法)만 상식적(常識的)으로 대충 알았을 뿐이다. 체일중(滯日中)이던 2月 27日 해방전(解放前) 경주박물관장(慶州博物館長)을 지낸 대판금태랑선생(大坂金太郞先生)을 방문(訪問)하였다. 내가 경주(慶州) 보통학교(普通學敎) 수학시절(修學時節)에 교장(校長)으로 계시던 분으로 은사(恩師)되는 분이었다. 1967年 내가 일본(日本)에 처음 갔을 때 방문(訪問)한 이후 두 번째의 길이었다. 선생(先生)께서는 나의 방문(訪問) 일정(日程)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출운(出雲) 공항(空港)으로 두 사람이나 마중을 보내 주었다. 호반여관(湖畔旅舘)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선생(先生)을 뵈오니 66세(歲)의 노령(老齡)이신데도 건강(健康)하신 모습으로 반겨 주셨다.



신라인면문와당(新羅人面紋瓦當) 경주흥한사북출토(慶州興翰寺北出土)
(1934. 9 출토(出土))
1972. 9. 14 수증(수증(受贈))

환영석(歡迎席)의 좌담(座談)은 신문화재(新文化財)에 관(關)한 것으로 꽃을 피웠다. 그 자리에서 문득 생각나는 것이 인면문화당(人面紋瓦當)이었다. 「신라고와(新羅古瓦)の연구(硏究)」라는 책(冊)에 사진만 있고 전중민신씨소장(田中敏信氏所藏)으로 되어 있었다. 그래 전중민신씨(田中敏信氏)의 존부(存否)를 물었더니 북구주(北九州)에서 병원(病院)을 차려놓고 있다고 했다. 전중씨(田中氏)라는 사람은 해방(解放) 전(前) 경주산구의원(慶州山口醫院)에서 의사(醫師)로 근무(勤務)하던 사람이었다. 율원(栗院)이란 골동상(骨董商)으로부터 인면문화당(人面紋瓦當)을 전중씨(田中氏)가 매입(買入)했었다는 사실(事實)까지 알고 있었으므로 경부박물관(慶州博物館)에 기증(寄贈)하도록 주선(周旋)해 줄 것을 부탁(付託)했다. 그것은 단(單) 한 개 뿐인 귀중(貴重)한 학술(學術) 자료(資料) 인데 개인(個人)이 갖고 있다는 것은 바로 사장(死藏)이 아니냐, 그러니 경주박물관(慶州博物館)에 기증(寄贈)한다면 바로 인면문(人面紋) 와당(瓦當)이 제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며 신라문화(新羅文化) 연구(硏究)에 얼마나 뜻깊은 일이 되겠는가. 더욱이나 경주박물관(慶州博物館)의 신청사(新廳舍)가 건설중(建設中)이니 곧 신축(新築)될 박물관(博物館)에 개관기념(開館記念)으로 진열(陳列)도 되며, 또 한가지는 나 개인적(個人的)인 사정(事情)이지만 명년(明年)이면 정년퇴직(停年退職)이니 최후(最後)의 업적(業蹟)으로 남기겠다고 간곡(懇曲)히 부탁하였다. 대판(大坂) 노옹(老翁)은 기증(寄贈)하도록 편지를 내겠다고 약속(約束)하였다. 전중씨(田中氏)는 □원민(□原民)에게서 그 당시(當時), 그러니 1934年의 시가(時價)로 백원(百圓)에 구입(購入)했다는 얘기도 나왔다. 내심(內心)으로 당시(當時) 백원(百圓)이라면 상당한 금액(金額)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렇다면 대판옹(大坂翁)의 간청(懇請)이랄지도 선뜻 전중씨(田中氏)가 내어줄 것인가 걱정되었다.

3月 4日 귀국(歸國)하여 얼마 지난 뒤 전중씨(田中氏)가 기증(寄贈)하겠다는 의사(意思)를 표(表)했다는 대판옹(大坂翁)의 편지(便紙)를 받았다. 고맙고 반가운 일이었지만 당시(當時) 돈으로 백원(百圓)이나 주고 산 그의 소유물(所有物)을 받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박물관측(博物館側)에서도 무슨 답례(答禮)를 해야겠는데 무엇을 어느 정도로 해야 좋을지 걱정이었다. 또 기증(寄贈)을 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경주박물관장부처(慶州博物館長夫妻)를 초청(招請)하여 그 자리에서 직접(直接) 기증(寄贈)하겠다는 것이었다. 일본(日本)도 구경(求景)할 겸 와 달라는 것이었다. 대판옹(大坂翁)은 피차(彼此)의 의사(意思)를 계속(繼續) 중계(中繼)하였다. 한국(韓國) 사정(事情)으로서는 해외(海外) 여행(旅行)이 불가능(不可能)하다는 것을 간접적(間接的)으로 설득(說得)시켰다. 결국(結局) 전중씨(田中氏) 내외(內外)가 9月 14日 인면문(人面紋) 와당(瓦當)을 직접(直接) 가지고 와서 박물관(博物館)에서 수증식(受贈式)을 했다. 신라(新羅)의 기와 문양(文樣)은 전세계(全世界)를 통(通)하여 전무후무(前無後無)의 독특(獨特)한 문화(文化) 유산(遺産)이다. 신라문화(新羅文化)의 종합예술(綜合藝術)이라 할만치 다종다양(多種多樣)의 기와가 출현(出現)되었다. 이 인면와(人面瓦)는 1934年 경주(慶州) 흥륜사지(興輪寺址)에서 출토(出土)되어 골동상(骨董商)에 들어갔는데 그 직후(直後) 전중씨(田中氏)에게 팔려 전중씨(田中氏)는 1940年 일본(日本)으로 귀국(歸國)하고 말았다. 그해 이 인면문(人面紋) 와당(瓦當)의 실물(實物)을 본 사람은 없었던 것이다. 그러한 연유(緣由)의 와당(瓦當이 다시 박물관(博物館)에 돌아왔다는 것은 오래도록 잊을 수 없는 흐뭇한 일의 하나일 것이다.

4. 유물(遺物)의 모조(模造) 3年

내가 모조품(模造品) 제작(製作)을 했다는 사실(事實)은 학술연구기관(學術硏究機關)인 박물관(博物館) 직무(職務)와는 하등관계(下等關係)가 없는 듯하다. 사실(事實)은 밀접(密接)한 관계(關係)가 있기 때문에 궁극(窮極)에 봉착(逢着)한 문제(問題)가 생겼을 때, 또 이 문제(問題)를 해결(解決)하는데는 부득이 여기에 손을 대게 되었던 것이다. 모조품(模造品)을 제작(製作)하기 앞서 박물관(博物館)은 학술연구(學術硏究)에 절대필요(絶對必要)한 것은 유물(遺物)을 위주(爲主)로 연구(硏究)하는 학문(學文)이기 때문의 유물자체(遺物自體)에 대(對)한 면밀(綿密)한 실측(實測)이 중요시(重要視)된다. 그러므로 실측(實測)한 도면(圖面)을 가지면 때에 따라 모조(模造)의 가능성(可能性)을 알게 된다.

1. 단봉총(端鳳塚) 금관모조(金冠模造)

1950年 6·25사변(事變)이 이러나자 괴뢰군(傀儡軍)의 남침(南侵)으로 우리 정부기관(政府機關)은 대구(大邱)까지 환도(還都)되었을 때다. 바로 7月 하순(下旬)이었다. 국방부제삼국장(國防部第三局長) 김일환대령(金一煥大領)은 국가중요(國家重要)한 재산(財産)을 소개(疏開)하는 임무(任務)를 띠고 부하(部下) 몇사람을 거느리고 박물관(博物館)에 와서 소장유물(所藏遺物)을 안전지대(安全地帶)로 소개(疏開)할 것을 얘기할 때 너무나 돌연(突然)한 일이라 김일환대령(金一煥大領)은 우리가 처음 보는 분으로 신빙(信憑)할 만한 서류(書類)를 제시(提示)는 했지만, 마음놓고 응(應)할 수 없었다. 이 때 본인(本人)모르게 이면(裏面)으로 신분(身分)을 확인(確認)한 다음에야 안심(安心)하고 유물(遺物)을 소개(疏開)하기로 결정(決定)하고 하역(荷役)하였다.

1951年 11月 14日 서울은 두 번째 수복(收復)되었으나 평화(平和)는 언제 올는지 그동안 박물관(博物館)은 휴관상태(休館常態)로 지나오다가 나머지 진열품(陳列品)을 정돈(整頓)하여 6月 1日부터 개관(開館)하게 됨은 전난(戰亂)으로 긴장상태(緊張狀態)에 있는 국민(國民)에게 안도감(安堵感)을 주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금관진열심(金冠陳列室)에는 진열(陳列)할 유물(遺物)이 없어 철문(鐵門)이 굳게 닫혔다.

이렇게 개관(開館)한 후(後)부터는 금관(金冠)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관람객(觀覽客)들은 매일 불평이 자자하였다. 어떤 때는 무력한 수위가 무장(武裝)한 군인(軍人)에게 봉변을 당(當)하는 것이 일쑤였다. 이 때 개관(開館)을 하자니 매일같이 싸움이 벌어지고 그렇다고 휴관(休館)할 수도 없고 이 때 모조금관(模造金冠)이라도 만들 수 있으면 금관진열실(金冠陳列室)을 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금관총금관(金冠塚金冠)을 소개(疏開)했으니 실측(實測)할 수는 없었다. 1952年 4月 어느날 부산(釜山)으로 내려가서 단봉총(端鳳塚) 금관(金冠) (이때 서울 국박(國博)에 소장(所藏)한 유물(遺物)은 부산(釜山)으로 소개(疏開)하였을 때다.)을 실측(實測)을 하고 곡옥(曲玉)은 청주(淸州)까지 가서 초자(硝子)로 만드는 수밖에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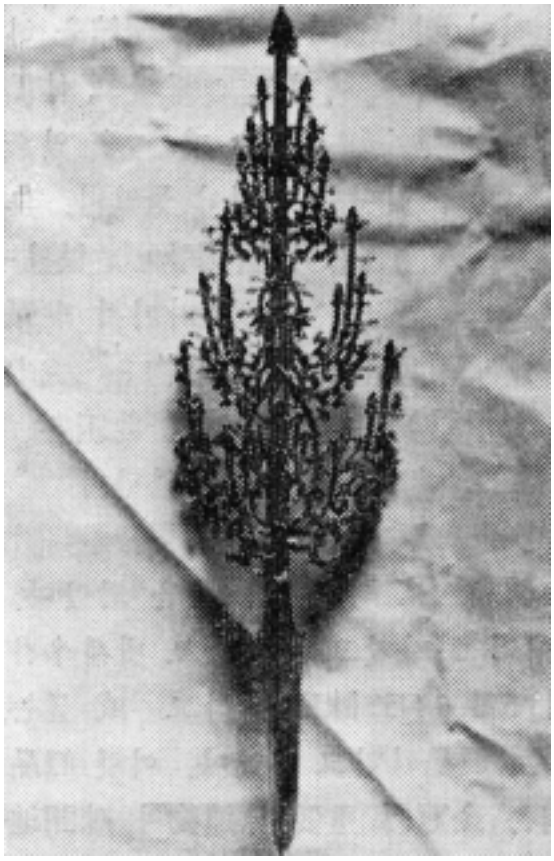
그동안 동분서주(東奔西走)하면서 재료(材料)를 구(求)해서 완성(完成)시켰더니 진품(眞品)으로 속겠다는 평(評)을 받았다. 그래서 모조품(模造品)이라 하지말고 진품(眞品)으로 내세우자는 합의(合議)가 있어 5月 14日 진열(陳列)을 하고 혹(或) 묻는 사람이 있을 때는 진품(眞品)이라고 하였다. 이 때 진품(眞品)으로 속인 이유(理由)는 금관외(金冠外) 중요(重要)한 유물(遺物)의 소개지(疏開地)는 극비(極秘)로 한 것과 또 금관(金冠)을 관람(觀覽)하는 손님이 실망(失望)한 다는 것이었다. 이때 가(假)짜로 진(眞)짜로 속은 분들에 깊히 사과(謝過)한다.

이렇게 박물관실정(博物館實情)이 각박(刻薄)할 때 금관모조(金冠模造)로 대치(代置)하였던 것이다. 그 후(後) 1956年 3月 7日 불행(不幸)이도 이날 당직수위(當直守衛)의 부주의(不注意)로 허점(虛點)을 노린 도적(盜賊)의 피해(被害)를 입게 되었다. 이튿날 지상보도(紙上報道)에 모조품(模造品)으로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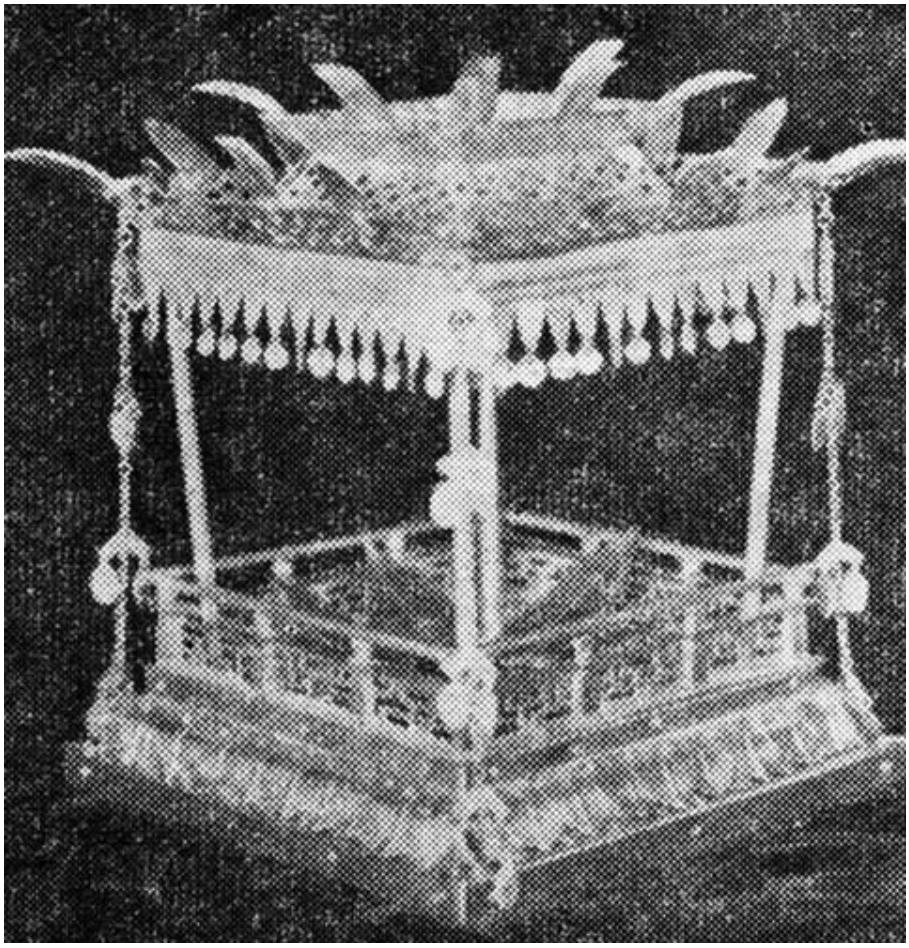
2. 송림사(松林寺) 오층석탑(五層石塔) 사리구(舍利具) 모조(模造)

1959年 4月 경북(慶北) 칠곡군(漆谷郡) 동명면(東明面) 송림사(松林寺) 오층석탑(五層石塔) 보수공사(補修工事)에 해체(解體)로부터 복원(復原)에 이르기까지 조사(調査)를 담당(擔當)하게 되었다. 석탑(石塔)의 정상(頂上)에 동제상륜(銅製相輪)부터 내리는 작업(作業)이 시작(始作)으로부터 층층(層層)으로 적취(積聚)된 석재(石材)를 차례로 내리는 작업(作業)이 계속(繼續)되었다. 4月 17日에는 第二層 탑신(塔身) 가운데서 석귀형석함(石龜形石函)이 출현(出現)되고 그 안에는 사리장치구(舍利裝置具) 등(等) 여러 가지 유물(遺物)이 안장(安藏)되어 있었다. 사리구(舍利具)는 가마형외식구(形外飾具) 중앙(中央)에 유리제(琉璃製) 컵이 연화좌(蓮花座)위에 안치(安置)되었고, 이 컵의 안에는 또 유리제장경병(琉璃製長頸甁)에 사리(舍利) 4과(顆)(백(百) 흑(黑) 적(赤) 투명(透明) 등(等) 사색(四色))가 안장(安藏)되었고 보주형(寶珠形) 뚜껑으로 병구(甁口)를 막았다. 또 측근(側近)에는 순은판(純銀板)에 수지형투각(樹枝形透刻)의 장신식구(藏身具)와 보륜절자옥(寶輪切子玉) 등(等) 다수(多數)의 유물(遺物)이 부장(副藏)되어 있었다. 국내(國內) 신문지(新聞紙)에는 다투어 연일(連日) 크게 보도(報導)되었고 송림사주변(松林寺周邊)은 매일(每日) 운집(雲集)하는 인파(人波가 인산인해(人山人海)를 이루어 대수라장(大修羅場)으로 변(變)하고 탑해체조위(塔解體調委)는 일시(一時)

중단(中斷)되었다. 그 후(後) 4月 27日 사리구(舍利具)는 서울로 이송(移送)되었다. 이날 하오(下午) 2시(時) 30분(分)에 서울역(驛)에 도착(到着)되자, 사리구(舍利具)는 빨간 보자기에 싸여 정중(鄭重)히 차(車)에 옮겨 실리고 뒤따르는 신도행열(信徒行列)은 장사진(長蛇陳)을 이루었다. 이 때 이 행렬(行列)은 대한민국에 처음있는 성대한 불교행사(佛敎行事)였다. 이 사리구(舍利具)는 서울서 실측(實測)을 하게 되었고 문교부(文敎部)에서는 사리구(舍利具)는 학술자료(學術資料)로 남기고 모조품(模造品)으로 사리(舍利)를 안장(安藏)하기로 내정(內定)되었고 나에게는 모조품(模造品)을 제작(製作)하라는 권고(勸告)를 받었을 때는 극구 거절하고 돌아왔으나 이때 사리구일절(舍利具一切)외 실측도면(實測圖面)은 나에게 있었고 또 이 모조품제작(模造品製作)으로 진품(眞品)이 박물관진열품(博物館陳列品)이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냥 있을 수 없어 곧 제작(製作)에 착수(着手)하여 6月 5日 완성(完成)시켰고 그 후(後) 송림사석탑(松林寺石塔)을 복원(復原)할 때 포장(包裝)된 모조(模造)는 송림사(松林寺)에 도착(到着)하자 신도(信徒)들은 진품(眞品)을 탑중(塔中)에 봉안(奉安)하라는 고집(固執)을 세웠으나 모조(模造) 사리구(舍利具)를 일견(一見)한 뒤는 반대(反對)하지 않았다. 신도(信徒)들의 요청(要請)에 의(依)하여 일주일간(一週日間) 대웅전(大雄殿)에 진열(陳列)한 다음 탑중(塔中)으로 안장(安藏)되었다. 이래서 송림사사리구(松林寺舍利具)는 국립박물관(國立博物館)에 진열품(陳列品)으로 수장(收藏)되었다.



칠곡송림사석탑 사리구 모조 (漆谷松林寺石塔 舍利具 模造)
1953. 6. 5 완성(完成)



경주(慶州) 불국사(佛國寺) 석가탑(釋迦塔) 사리구(舍利具) 모조(模造)
1966. 12. 21 완성(完成)

3. 석가탑사리구(釋迦塔舍利具 模造)

1966年 9월초(月初)에 경주불국사(慶州佛國寺) 석가탑(釋迦塔)은 괴한(怪漢)의 침입(侵入)으로 피해(被害)를 입게 된 동기(動機)로 10月 14日 해체(解體)에 실수(失手)가 일어났으나 탑중(塔中)에 안장(安藏)된 사리장치구(舍利裝置具)를 비롯하여 대판다라니경(大板多羅尼徑)은 세계최고(世界最古)의 인쇄판(印刷版)으로 자랑꺼리였다.

이 탑중(塔中) 사리구일절(舍利具一切)을 모조(模造)하여 탑중(塔中)으로 봉안(奉安)하려는 방침(方針)을 세웠다. 즉(卽) 송림사사리구(松林寺舍利具)와 같이 진품(眞品)을 학술연구(學術硏究)에 제공(提供)토록 하는 것이었다. 이때 제작지도위원(製作指導委員)으로 위촉(委囑)되었다가 다시 지도관(指導官)으로 위촉(委囑)되었다. 제작(製作)의 실기(實技)에는 기술자(技術者)를 고용(雇傭)하고, 작업(作業)에 직접지도(直接指導)를 하기로 되었다. 면밀(綿密)한 실측(實測)과 제작(製作)에 필요(必要)한 모든 준비(準備)를 하여 서울서 작업장(作業場)을 정(定)하고 특수기술자(特殊技術者)를 초청(招請)하여 제작(製作)에 임(臨)하였다. 작업중(作業中)은 불사(佛事)에 지극(至極)한 정성(精誠)을 드리기 위(爲)하여 흡연(吸煙)을 금(禁)하고 분향(焚香)을 하였다. 작업과정(作業過程)에는 도면(圖面)이나 설명(說明)으로 이해(理解)못할 때는 석고(石膏)로 형(形)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조금(彫金)이 잘못될 때는 몇번이고 시정

(是正)을 거듭하였다. 이렇게하여 약(約)일주일(一週日)만에 완성(完成)에 이르자 12月 23日 봉안식일자(奉安式日字)도 결정(決定)되었다. 탑(塔)의 복원장비(復原裝備)도 갖추고 대기(待機)하고 있는 중(中)이었다.

이날 봉안식거행(奉安式擧行)의 직전(直前) 아침 일찍부터 모조사리구(模造舍利具)는 잠시 동안아니마 유리장에 넣어 공개(公開)되자 운집(雲集)하여 보는 사람마다 감탄(感嘆)을 금(禁)치 못하였다. 이날 11시(時)에 사리(舍利)가 봉안(奉安)된 모조장치구(模造裝置具)는 정중(鄭重)히 탑중(塔中)으로 안장(安藏)되는 성대(盛大)한 불교의식(佛敎儀式)이 끝나자 석탑복원작업(石塔復原作業)도 층층(層層)의 부재(部材)가 복원(復原)되었다.

나는 박물관(博物館)에 재직(在職)하는 동안 이렇게 삼건(三件)의 모조품(模造品)을 제작(製作)하였다. 어느것을 제작(製作)하든 한번도 실물(實物)을 옆에 놓고 작업(作業)한 일은 없었다. 작업(作業)할 때는 다만 도면(圖面)에만 의존(依存)하게 됨으로 실측(實測)이 섬세해야 함은 더말할 것도 없었다. 이렇게 모조품(模造品)을 제작(製作)할 때마다 복잡(複雜)한 문제(問題)를 수습(收拾)하는 방책(方策)에서였고 한 편(便) 귀중(貴重)한 고고학술연구자료(考古學術硏究資料)를 확보(確保)하는 길이었다. 이럴 때마다 남이 느끼지 못하는 쾌감(快感)과 보람을 느끼게 되었고 이것이 내가 평생(平生) 문화재(文化財)와 맺은 천부(天賦)의 인연(因緣)인줄 생각한다.

5. 박물관(博物館)의 신축(新築)

경주박물관(慶州博物館)의 신축(新築)을 희망(希望)하고 계획서(計劃書)를 작성(作成)한 것은 1966年 5月이었다. 경주(慶州) 관광객(觀光客)은 증가일로(增加一路)였고 춘추(春秋)의 수학여행단(修學旅行團)이 입관(入館)할 때는 박물관내(博物館內)는 문자(文字) 그대로 수라장(修羅場)이었다. 해방전(解放前)까지만 해도 현재(現在)의 시설(施設)로 충분(充分)했겠지만 이제는 격증(激層)하는 관람객(觀覽客)을 감당할 능력(能力)을 잃은 지 오래다. 그해 보다 큰 규모(規模)의 박물관(博物館)을 신설(新設)하지 않을 수 없어 빈약(貧弱)한 초안(草案)의 계획서(計劃書)를 작성(作成), 유인물(油印物)로 반영(反映)의 기회(機會)를 얻기에 애썼다. 1967年 마침내 박대통령(朴大統領) 각하(閣下)께서는 지시각서(指示覺書) 11호(號)로 윤허(允許)하셨다. 이것은 염원(念願)했던 나의 소원(所願)이 반영(反映)되어 대규모(大規模)의 박물관(博物館)이 신축(新築)하게 되는 것이니 일생(一生)을 두고 흐뭇한 일일 것이다. 이 때 위치(位置)를 정(定)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반월성(半月城)을 제일(第一) 후보지(候補地)로 삼고 지적도(地籍圖)와 지번조사(地番調査)를하여 작성(作成)해 보니 123필(畢)에 총면적(總面積)은 5萬9千5百92坪이었고 그 가운데 민유(民有) 매입(買入)은 67필(畢)에 2萬6千4百69坪이었다. 그러나 이곳을 결정(決定)할 경우 공사(工事)가 매우 늦어질 것은 피(避)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그것은 신라(新羅) 고궁지(古宮址)인 까닭에 우선 발굴(發掘) 조사(調査)를 선행(先行)해야겠기 때문이었다. 건축물(建築物)의 위치(位置)를 정(定)하고 고궁지(古宮址)인 까닭에 우선 발굴(發掘) 조사(調査)를 선행(先行)해야했기 때문이었다. 건축물(建築物)의 위치(位置)를 정(定)하고 고궁지(古宮址)를 박물관(博物館)에서 보존관리(保存管理)하는 방안(方案)을 세우고 부지(敷地)의 청사진(靑寫眞)을 국립박물관(國立博物館)으로 올렸다. 그랬더니 학계(學界)에서는 고궁지(古宮址) 말살(抹殺)이라는 여론(輿論)이 일어나 포기(抛棄)했다. 第2 후보지(候補地)는 안압지(雁鴨池)를 포함(包含)한 부근일대(附近一帶)를 정(定)하고 추진(推進)하였다. 이곳은 동남(東南)쪽에 도로(道路)가 합(合)해진 구석에 일명(一名) 삼각지(三角

地)인 민유(民有)가 20필(畢)에 7千8百33坪인데 이것만 매입(買入)하면 1萬4千여평(餘坪)의 공유지(公有地)가 있고 관지(館池) 6千5百85坪 도합(都合) 2萬9千88坪의 광범(廣範)한 지역(地域)에 박물관(博物館)을 건축(建築)하고 안압지(雁鴨池)와 임해전지(臨海殿址)는 외원(外苑)으로 관리보존(管理保存)하겠다 했더니 이 또한 유적(遺蹟)과 측근(側近)이라는 말썽이 있어 第3 후보지(候補地)를 물색(物色)할 수 밖에 없었다. 그래 반월성(半月城) 최동단(最東端)인 남(南)쪽 평야일대(平野一帶)를 정(定)한 것이 통과(通過)되었다. 1968年 11月 3日부터 동월(同月)25日까지 75필(畢) 2千7百5坪에 대(對)한 매입(買入)을 전제(前提)로 한 소유자(所有者)들로부터 동의(同意) 날인(捺印)을 완료(完了)했다. 그 즉시(卽時) 12月 말일(末日)까지 국유(國有)로 이전등기(移轉登記)를 완료(完了)했음은 사상(史上)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단시일(短時日)에 끝냈다고 해서 가격(價格)을 높여준 것도 아니고 실제(實際) 매매가격(賣買價格)보다 오히려 낮게 매입(買入)한 공적(公積)을 올렸다. 이는 오로지 경주(慶州)의 발전(發展)을 위(爲)한 일이라는 나의 설득(說得)에 주민(住民)과 소유자(所有者)들이 협력(協力)해 주었기 때문이었다.

그 뒤 신축박물관(新築博物館)의 설계(設計)는 세 번이나 변경(變更)이 되는 고난(苦難)을 겪었다. 올해 년말(年末)까지는 완공(完工)한다지만 어려울 것 같다. 그러나 시작(始作)한 일이니 언제 되어도 완공(完工)은 될 것이다. 필자(筆者)가 염원(念願)하대로 훌륭한 박물관(博物館) 청사(廳舍)를 완성(完成)한 뒤에 퇴직(退職)할 수 있으면 좋을텐데 목전(目前)에 두고 오는 11月 퇴직(退職)한다는 것은 개인적(個人的)으로 서운한 감(感)을 금(禁)할 수 없다. 불원(不遠) 대규모(大規模)의 경주박물관(慶州博物館)이 완공(完工)됨은 국가(國家)와 경주(慶州)의 경사(慶事)로 자위(自慰)한다.

6. 결 론(結 論)

8·15 해방전후(解放前後)를 통(通)하여 문화재(文化財)와 인연(因緣)을 맺은지 34年이라면 일생(一生)을 통(通)하여 박물관(博物館)에 거의 몸과 마음을 바친 셈이다. 해방전(解放前) 1938年 경주고적보존회촉탁(慶州古蹟保存會囑託)으로 4년간(年間)은 외부(外部)의 고적답사(古蹟踏査)에 주력(主力)하여 신라고적분포(新羅古蹟分布)의 윤곽(輪郭)을 익히게 되었고, 1942年에는 박물관(博物館)으로 전환(轉換)하여 2년간(年間)의 경력과 1944年에는 경주세무서(慶州稅務署) 토지조사과(土地調査課)에서 일을 하는 동안 지적(地籍)을 익혀 노은 것이 해방직후(解放直後)부터 박물관직무(博物館職務)를 일관(一貫)하는 데 기초(基礎)가 되었다. 이제 정년퇴직(停年退職)이란 운명선상(運命線上)에 놓였으니 지난날의 회고(回顧)가 새롭지 않을 수 없다. 돌이켜보면 당시(當時) 우리나라는 해방(解放)이 되었다 하더라도 당초(當初)부터 미군정(美軍政)이 실시(實施)되면서 과도정부(過渡政府)가 수립(樹立)되었다 하더라도 사회(社會)는 몹시 혼란(混亂)을 거듭하여 직장(職場)에서 받는 보수(報酬)는 도저(到底)히 생활(生活)할 수 없었다. 박물관직원(博物館職員)은 모두 냇가에 자갈과 공기(空氣)를 먹고 산다는 말까지 항간(巷間)에 떠올랐다. 나는 참을 때까지 참다가 불상(佛像)도 만들고 인형(人形)도 만드는 토예품수공업(土藝品手工業)을 내업(內業)으로 시작(始作)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낮에는 박물관참사(博物館參事)란 직위(職位)에서 서기(書記)한 사람을 데리고 서무(庶務)를 비롯하여 수예품일절(收藝品一切)을 담당(擔當)하는 위치(位置)에서 일을 하였고 밤이면 수공업(手工業)의 직공(職工)이 되다시피 밤 늦도록 열심히 일을 하였다. 이로써 청빈(淸貧)한 박물관직장(博物館職場)에서 남이 죽먹을 때 나는 밥을 먹었고 계획(計劃)없이 자연소생(自然所

生)되는 자녀(子女)를 길러 학비조달(學費調達)에 큰 보탬이 되었고 또 박물관(博物館)이란데는 전국(全國)의 상하(上下)없이 찾아오는 손님의 접대(接對)에도 신경(神經)이 쓰인다. 그때 양복지(洋服地)는 없어 무릎과 궁뎅이를 깁은 양복(洋服)을 입지 않은 분이 몇사람이나 될까. 박물관직원(博物館職員)이 명사(名士)를 대응(對應)할 때 이렇게 험한 꼴로 대(對)한다면 상상도 못하는 추한꼴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런점(點)에 격별(格別)한 조심(操心)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모두가 팔자(八字)에 타고난 소질(素質)이라 할까 남이 쉴 때 나는 쉬지 않고 노력(努力)하였던 것이다. 나의 생활이면(生活裏面)은 이렇게 계속(繼續)하는 동안 1960年 돌연(突然) 공주박물관(公州博物館)으로 전근발령(轉勤發令)이 나자 내업(內業)은 이 때부터 그만두게 되고 이때 대학(大學)에 둘, 高一, 中一, 小一의 자녀(子女)가 재학중(在學中)의 전가족(全家族)을 고스란히 두고 단신(單身)으로 부임(赴任)하게 되어 경주(慶州)에 두고온 가족(家族)은 생활(生活)이 말이 아니고 공주(公州)로 부임(赴任)한 나는 품속에 젖먹이를 떼고 온 어머니처럼 뵈고 맞았다. 공주(公州)서는 숙직실(宿直室)에 잠을 자고 밤낮 유물정리작업(遺物整理作業)에 고달픈 심경(心境)을 달래는데 소모(消耗)시켰다.

나는 지금도 심계관(審計官) 김득장씨(金得藏氏) 생각이 난다. 1948年 대한민국정부(大韓民國政府)가 수립(樹立)되고 이듬해 7月 6日 또 한분의 직원(職員)과 함께 이날 정오(正午)에 도착(到着)하였다. 내일(來日)부터 박물관(博物館)을 감사(監査)한다는 것이다. 박물관(博物館) 수장품(收藏品)은 해방(解放)된 이듬해부터 정리(整理)에 착수(着手)하여 수예품(收藝品)의 정확(正確)한 위치(位置)를 정리보조대장(整理補助臺帳)을 만들어 일일이 명시(明示)되어 있었다. 원래(元來)부터 책자(冊子)로 된 대장(臺帳)은 없고 카-드만 작성(作成)되어 있었다. 감사(監査)를 시작(始作)한 첫날은 합계감사(合計監査)를 선차(先次)로 하고 다음 유물조사(遺物調査)를 한다는 순서(順序)를 정(定)하고는 서기(書記) 한씨(韓氏)에게 년세출총액(年歲出總額)을 보고, 증빙서(證憑書)를 몇 장 넘겨 보더니 회계조사(會計調査)는 볼 것 없는 감사(監査)를 하고는 곧 유물조사(遺物調査)로 시작(始作)하자 카-드를 들고 이 카드에 있는 유물(遺物)을 한 점(點) 빼지 말고 전부(全部) 실검(實檢)한다는 것이었다. 유물번호(遺物番號)는 순서(順序)가 없어 이곳저곳 또는 진열(陳列)된 것 등(等) 흩어져 있었다. 정리보조부(整理補助簿)에는 유물(遺物)의 소재(所在)가 밝혀져 있었으므로 얼마든지 쉽게 찾아낼 수가 있었다. 꼭 5일간(日間)을 걸려 유물(遺物)의 점검(點檢)을 마친 뒤 심계관(審計官)의 엄숙(嚴肅)한 표정(表情)이 아니고 부드럽고 다정(多情)한 얼굴로 극구칭찬(極口稱讚)을 아끼지 않았다. 모든 기관(機關)이 질서(秩序)없이 혼란상태(混亂相態)에 빠져 있는 현실(現實)에 우리나라 귀중(貴重)한 문화재(文化財)를 이렇게 소중(所重)히 보관(保管)하고 정리(整理)가 될 리 없으니 참으로 고마운 일이라 하면서 당신(當身)은 우리나라 박물관(博物館)을 위(爲)하여 꼭 있어야 할 사람이니 앞으로 충실(充實)히 일해 달라는 부탁(付託)을 깎듯이 하였다. 이때 누구 보담도 심계관(審計官)이 이렇게 인정(認定)하고 격려(激勵)해 주는데 마음이 흡족하였고 성실(誠實)히 박물관(博物館)과 외부(外部)에 산재(散在)한 고적보존(古蹟保存)을 위(爲)하여 일할 것을 마음으로 다짐해 왔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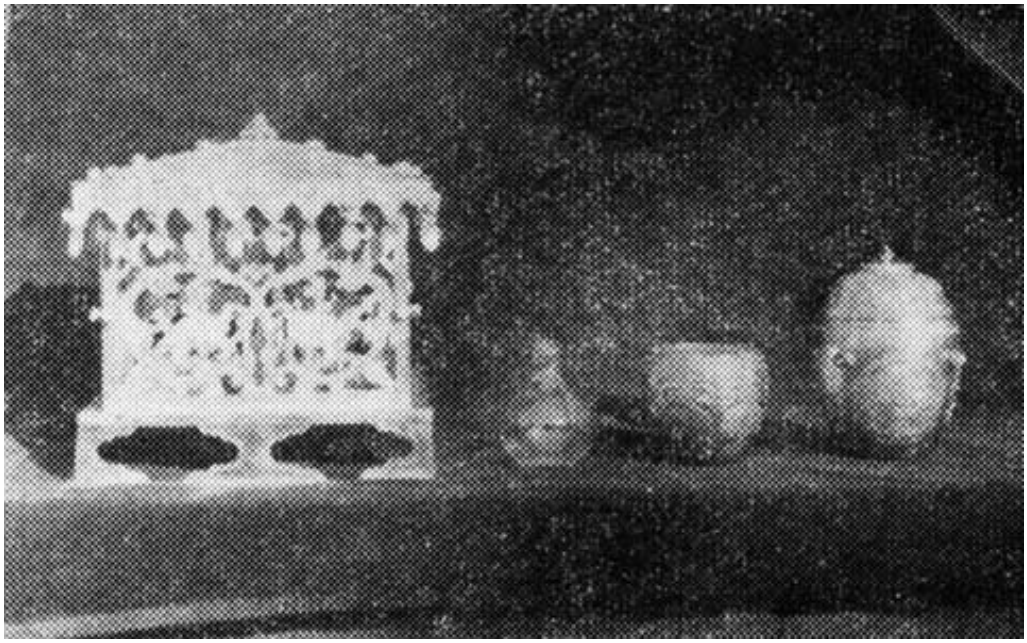
이제 경주(慶州)는 세계관광무대(世界觀光舞臺)로 등장(登場)하여 관광객(觀光客)을 유치(誘致)하려는 자세(姿勢)를 구체적(具體的)으로 가다듬고 있다. 신축박물관(新築博物館)은 믹사 돌아가는 소리가 나고 명년(明年)이면 이도(移徒)를 하게 된다. 그러면 현재박물관청사(現在博物館廳舍)는 어떻게 사용(使用)될 것인가 이 시점(時點)에서 생각할 큰 문제(問題)다. 이 청사(廳舍)는 이조시대(李朝時代) 경주부윤(慶州府尹)의 내동헌(內東軒)(공관(公館))이었음으로 이조고건물(李朝古建物)의 환경(環境)에 명실(名實)이 상부(相符)하게 민속관(民俗館)(가

치(假稱))을 개설(開設)하여 민속품진열(民俗品陳列)은 물론(勿論) 미풍양속(美風良俗)의 표본(標本) 또는 모형(模型)을 입체적(立體的)으로 진열효과(陳列效果)를 냄으로써 경주(慶州)는 신라유물(新羅遺物)의 고고박물관(考古博物館)에 대(對)하여 한편은 민속민예품관(民俗民藝品館)의 양립(兩立)으로 신구대조적(新舊對照的)인 비교(比較)로서 문화(文化)의 변천(變遷)을 알게 되고 민족(民族)의 전통(傳統)을 새롭게 이해(理解)하여 국민(國民)으로 하여금 주체의식(主體意識)을 높이는 효과(效果)를 거둘 것이다.

또 경주시가(慶州市街)의 발전(發展)은 오래동안 현위치(現位置)에 찾아드는 관광객(觀光客)이 드나드는 순로(順路)에 따라 제가끔 상가(商街)는 발전(發展)되어 왔다.

앞으로 신축(新築)된 박물관(博物館)으로 이도(移徒)를 하면 그 부근(附近)은 제한지구(制限地區)로 상가발전(商街發展)이 안된다. 구박물관(舊博物館)은 관광객(觀光客)을 수용(收容)하는 기관(機關)이 안되면 관광용(觀光容)은 외곽(外郭)으로 통과(通過)할 뿐이니 경주발전(慶州發展)에 적지 않은 영향(影響)을 줄 것이다. 그러므로 박물관신축계획(博物館新築計劃)을 추진(推進)하면서부터 심각(深刻)한 문제(問題)로 다루어 민속관추진계획서(民俗館推進計劃書)를 중앙(中央)에 반영(反影)시키고 있는 중(中)이다. 수립부터 유물(遺物)의 수집(蒐集)에 있어서 한 점(點)도 욕심(慾心)을 내지않고 국고(國庫)에 등록(登錄)한 것이다. 그러므로 내집에는 기와 조각 하나 사욕(私欲)으로 모은 것이 없다. 만일(萬一) 사욕(私欲)을 차리고 장래(將來)를 위(爲)했다면 큰 부자(富者)도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박물관(博物館)의 청렴(淸廉)한 기관(機關)에서 퇴직(退職)하는 날부터 셋방(房)살이를 면(免)치 못하는 신세(身勢)가 되었다하나 조금도 후회(後悔)하지 않고 지하(地下)에 묻히는 날까지 선조(先祖)가 이룩한 문화재(文化財)를 위(爲)하여 일할 것이다. 지금까지 나의 몸과 마음을 바친 박물관(博物館)을 퇴직(退職)한다는 것은 방(房)안에서 볼 일을 다 마치고 문턱에서 신발을 신을때와 같은 순간인 감(感)이 든다. 이제는 내가 갈 곳은 초야(草野)에 묻힐 몸이지만 그동안 걸어온 길이 반평생(半平生)이라면 반평생(半平生)동안 문화재(文化財)와 인연(因緣)을 맺고 일하면서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보다 못한 일이 더 많을 것이다. 그러나 기억에 남아 있는 것은 산일(散逸)을 막고 국가보존(國家保存)에 중점(重點)을 두어 일본인(日本人)들의 수집품(蒐集品)을 수단(手段)껏하여 접수(接受)하려던 일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지금도 뼈저리게 염원(念願)되는 것은 경주박물관(慶州博物館)은 일제무단정치시대(日帝武斷政治時代) 분관(分館)이란 제도(制度)가 오늘날까지 시정(是正)되지 않고 있어 그 운영(運營)에 고충(苦衷)을 겪고 있으니 신라문화(新羅文化)의 학술연구(學術硏究)와 함께 박물관(博物館)의 발전(發展)을 기(期)할 수 없는 것이다.



경주(慶州) 불국사석가탑(佛國寺釋迦塔) 사리구 모조(舍利具 模造)

1966. 12. 31